

-고 있다

~하고 있다 — 진행 중인 동작

한국어의 진행형입니다.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며, 습관이나 동작이 끝난 뒤 남아 있는 상태에는 쓰지 않습니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모든 동작 동사	-고 있다	먹다 → 먹고 있어요
ㄹ 어간은 ㄹ 유 지	-고 있다	만들다 → 만들고 있어요
과거	-고 있었다	먹고 있었어요
높임 주어	-고 계시다	오고 계세요
결과 상태	-아/어 있다	문이 열려 있어요
습관	단순 현재형	매일 학교에 가요

■ 언제 쓰나요

어간에 -고를 붙이고 있다가 활용합니다: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. 모음 규칙도 ㄹ 탈락도 없습니다. 높여야 할 주어일 때는 있다가 계시다로 바뀝니다: 선생님께서 오고 계세요.

흔한 함정은 습관에는 이 형태를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‘요즘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’는 진행 중인 일이므로 괜찮지만, ‘매일 학교에 간다’는 습관이므로 반드시 단순 현재형을 씁니다: 매일 학교에 가요 가고 있어요는 쓰지 않습니다.

두 번째 함정은 옷을 입는 동사와 함께 쓰면 -고 있다가 뜻이 모호해진다 는 점입니다. 코트를 입고 있어요는 ‘코트를 입는 중이다’와 ‘코트를 입은 상태다’ 둘 다 될 수 있습니다. 동작 후 남아 있는 상태에는 일반적으로 다 음을 씁니다: -아/어 있다 — 문이 열려 있어요 (문이 열린 상태), 열리고 있어요가 아닙니다.

■ 예문

- 1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.
- 2 비가 오고 있어요.
- 3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.
- 4 선생님이 전화를 하고 계세요.
- 5 그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어요.
- 6 뭐 하고 있었어요?

■ 비교

-아요/어요
단순 현재형이 이미 습관과 일반적 사실을 나타내므로, 여기에 -고 있다가 붙이는 것은 단순히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틀린 표현입니다.
매일 커피를 마셔요. (매일) /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. (지금)

-아/어 있다
-고 있다는 펼쳐지고 있는 동작을, -아/어 있다는 동작이 남긴 상태를 나타냅니다. 자세나 열림을 나타내는 동사는 뒤의 것을 씁니다.
앉고 있어요. (앉은 동작 중) / 앉아 있어요. (앉은 상태)

-는 중이다
의미가 비슷하면서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으로, 무언가를 하는 도중이라 방해받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. 명사에도 붙습니다: 회의 중이에요.
공부하고 있어요. / 공부하는 중이에요.

■ 주의

- ✗ 저는 매일 학교에 가고 있어요.
- 저는 매일 학교에 가요.
한국어에서 습관은 단순 현재형으로 말합니다. -고 있다는 말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, 요즘 배우고 있어요처럼 진행 중인 일에만 씁니다.
- ✗ 창문이 열리고 있어요. — ‘창문이 열려 있다’는 뜻으로
- 창문이 열려 있어요.
-고 있다는 창문이 열리는 과정 중이라는 뜻이 됩니다. 결과 상태에는 -아/어 있다가 쓰세요.
- ✗ 선생님께서 오고 있어요.
- 선생님께서 오고 계세요.
주어를 높일 때는 문장 전체가 맞도록 있다가 계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.